

北韓의 林業과 山林概況

유 병 일 / 임업연구원
농 박

1. 서론

최근 북한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서울에서 판문점을 거쳐 개성, 평양으로 왕래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분야의 인사들이 북한 산림에 대한 단편적이거나 개괄적인 이야기를 최근에 전해오고 있다. 즉 판문점서 개성사이의 도로변 산림지대가 다락논으로 개간되어 민둥산이 되어있고 푸른 산림을 볼 수가 없으며, 산간오지에도 북한의 혁명사상을 고취시키는 각종의 기념물이 건립되어 풍치를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북한의 폐쇄정책 때문에 북한의 임업 및 산림에 대하여는 자료 입수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나, 지난 1910년 조선말기의 산림 조사사용에 의하면 한반도 전체 1,500만 ha에 약 7억㎡의 산림임목자원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일제는 한일 합방이후 이들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영림서를 전국에 36개소를 설치하여 북쪽지역에 25개, 남쪽에는 11개소를 설치한후 일본인만을 영림서장으로 임명하여 전국각지의 울창한 산림자원을 조직적으로 수탈한 결과 1937년에 영림서를 11개소로 줄이고 북한에 9개소를 존치시킬 정도로 산림을 무차별 남벌하였다.

북한의 산림자원이 풍부하였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볼때 현재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돼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황폐된 남쪽의

산지가 녹화되어 FAO(국제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에서 한국을 4대 조림성공국가(한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의 하나로 손꼽을 만큼 산림조성에 성공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2. 북한의 경제개황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인 자립적 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군사·경제의 병진은 북한 임업현황을 쉽게 이해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북한의 자주적 경제건설 방침에 따라 6.25전쟁 이후 경제국토 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자급자족한 결과 과도한 벌채가 이루어져 산림이 크게 황폐화되었으며, 중공업 우선 정책결과 산림의 재조림 보호사업이 중요시되지 못하였고, 군사비의 과도한 지출때문에 1차 산업인 임업분야에의 관심이 제고되지 못한 상태가 야기되었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조건인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는 북한의 모든 산림을 국유화함에 따라 개인의 산림소유가 통제되고 중앙집권적계획경제 결과 계획의 일원화, 계획의 세분화로지역실정에 알맞는 임업·산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업분야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되었음이 지적될 수 있다.

현재 북한경제사업의 관리원칙 및 체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우

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토록 하는 것인데, 현지사정을 감안 문제 해결하고 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선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대안의 사업체제로서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 관리 형태가 지배적이며,

셋째, 독립채산체로서 현재 완전. 반. 이 중 독립채산체의 3종이 있는데 북한의 임업기업도 이와같은 3개원칙에 충실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노력경쟁으로 산업분야별 종사원들에게 서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분야별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임업분야와 같이 산간 오지에서 장기간 작업을 함에 따라 기계화되기 힘들고 육체노동에 의존하는 비율이 큰 경우 산림작업자에 대한 노동경쟁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북한이 '47년 이후 실시한 각종 경제계획기간 중 초기에는 공업기반구축에 주력하고 임업부문에 관한 계획은 1차 7개년계획('61-'70)기간중에 산림조성 85만정보라는 물량적인 목표가 최초로 제시되었다. 이후 2차 7개년계획('78-'84)에 200만 정보 조림계획, 3차 7년계획('87-'93)에 150만 정보 조림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73년도부터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약 250만 ha의 산림을 조성한것에 비하면 북한도 나름대로 산림조성 역사가 깊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조림계획에 대한 성과표가 전무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림조성작업을 수행완료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3. 북한의 산림개황

북한의 산림에 관한 '86년 통일원의 추정자

료에 의하면 총 산림면적은 940만 ha로서 전국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적량은 3억 6천만 m^3 로 ha당 평균 축적은 $38m^3/ha$ 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간 목재수요량은 약 300만 m^3 로서 이중 150만 m^3 의 목재를 소련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는 20만 정보의 새 땅찾기 운동과 전국토 다락밭 만들기운동등으로 산지면적이 감소 추세인데 1970년에 조사된 북한의 지역별 산림면적 및 축적은 990만 ha, 1억 6천만 m^3 으로 그동안 면적이 약 50만 ha감소하고, 축적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지역의 인공위성촬영 사진에 의하면 백두산 지역을 비롯한 오지의 산림지역이 극심하게 황폐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3억 6천만 m^3 의 추정축적량은 과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강원북부지방과 황해도의 임상은 ha당 5~15 m^3 정도로 극히 불량한 상태이다.

〈표 1〉 지역별 산림 실태 (1970)

단 위 : 백만정보, 백만 m^3

구분	산림	%	산림	'86추정치	평균추정축적 m^3/ha
함북	1.5	15.2	27.8	62.6	41.7
함남	1.6	16.5	17.9	40.3	25.2
양강	1.4	14.5	43.8	98.6	70.4
자강	1.5	15.5	36.6	82.4	54.9
평북	0.9	9.5	13.7	30.9	34.3
평남	0.9	9.4	9.3	20.9	23.2
강원	0.9	9.1	6.4	14.4	16.0
황북	0.6	6.0	3.5	7.9	13.2
황남	0.4	4.3	0.8	2.0	5.0
계	9.9	100.0	160.0	360.0	36.0

주 1 : 산림면적은 '70년, 축적은 '86년 추정치기준.

북한지역의 주요수종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낙엽송, 소나무 등의 침엽수와 참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등의 한대성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연간 생장을 5%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침엽수가 약 1억9천만 m^2 , 활엽수가 1억6천만 m^2 정도로 우리나라 (1989년말 기준 산림면적 648만 ha, 축적 2.3억 m^3 , 침엽수림 1.0억 m^3 , 활엽수림 0.6억 m^3 , 혼효림 0.7억 m^3 , 평균축적 36 m^3 /ha)에 비하여 아직은 산림상태가 약간 좋은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진을 이용한 정밀한 산림자원관리를 지난 60년대말 부터 실시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항공사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산림은 전통적인 현장답사에 의한 표본추출법에 의해 조사하고 있으며, 임업관리 전문대학에서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북한 산림 현황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점이 상존해 있다.

〈표 2〉 수종별 입목축적

단 위 : 백만 m^3

구분	수종	축적량(추정치)		점유비율 %
		70	86	
침엽수	낙엽송	32	72	20
	소나무	27	61	17
	기 타	27	61	17
	소 계	86	194	54
활엽수	참나무	30	68	19
	자작나무	10	22	6
	피나무	10	22	6
	기 타	24	54	15
	소 계	74	166	46
총 계		160	360	100

현재 북한의 주요수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비나무 : 전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북부고원지대에서 부터 태백산까지 대규모로 조림되어 있다. 목재는 펄프용재, 건축재, 가구재 등으로 사용된다.

2. 박달나무 : 중부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목재는 단단하여 방적용 북, 실패, 목각용재로 사용되고 있다.

3. 들메나무 : 자강도의 전체조림면적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주요수종 중의 하나이다. 목재는 무늬가 아름다워 주로 고급 화장합판의 표피합판으로 이용되고 있다.

4. 가문비나무 : 독일가문비와 같이 목질섬유가 레이온원료인 용해펄프생산에 이용된다.

5. 왕느릅나무 : 주로 자강도에 분포하며, 소규모로 조림되어 있다. 목재는 합판과 가구용재로 사용된다.

6. 황철나무 : 북한 전역에 걸쳐 자생하는 나무인데 펄프용으로 이용된다.

7. 오동나무 : 특수목재로 가구용재로 사용된다.

8. 황벽나무 : 북한의 중부지방에 분포되며, 목재는 화장단판 생산에 사용된다.

9. 다릅나무 : 일본에 수출되는 목재로 주로 북부지방에 분포되어 있다. 목재는 목각용으로 사용된다.

이외에 주요수종으로는 눈잣나무, 향나무, 피나무, 잣나무, 낙엽송, 잎갈나무, 소나무, 참나무류가 있다.

4. 북한의 임업

북한의 임업정책은 1947년 12월 22일자 의 북한 산림의 국유화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완전국유화로 전환되어 계획 경제체제하에서 운

영되고 있으며 북한 학술지에 나타난 최근의 임업정책기초는 [산의 종합적 이용을 통한 산간지대농민의 생활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북한의 경우 산림 비율이 우리나라의 64%보다 높은 80%에 가깝기 때문에 산림지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북한의 생약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100여 종류의 용재식물, 섬유제지 식물, 50여 종류의 유지식물, 30여 종류의 산과식물, 320여 종류의 사료식물, 70여 종류의 밀원식물, 60여 종류의 향료식물, 900여 종류의 약용식물, 300여 종류의 산나물을 종합이용함과 동시에 목축, 산간농업, 산간공업을 촉구하고, 이를 통한 산간농민의 생활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경쟁강화 결과 임업노동자 우대 조치를 강화실시하고 있다. 1949년 6월 18일의 임산업 종사원 우대 결정에 기초를 두고 1954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산사업부문 열성자대회와 함께 1962년 10월 18일에 제정된 공훈별목공, 공훈유별공 칭호 제정 및 임업노동자절(매년 10월 첫째 일요일)등의 각종 대회 및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업부문 노동자의 생산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한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업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조림, 임산물 생산, 임산공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을 통괄하는 정부조직 및 임업관련법률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조림사업

임제식민정권에 의거 남벌되고 6.25전쟁중 파괴된 황폐산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림·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식수조림은 경제림,

유지림, 섬유제지림 구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1968년 현재까지 유지림(호도나무, 가래나무, 잣나무 등)이 경제림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에 유지림 36만 정보, 섬유제지림 46만 정보를 새로 조성하였다고 했으며, 1972년 호도나무, 가래나무, 잣나무 등을 많이 심어 2만6천 정보 이상의 유지림이 조성되고, 1973년 9만4천 정보의 경제림이 새로 조성되었다고 발표하는 등 유지림 중심의 경제림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림 조성 기간을 준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추기에는 6월부터 60세까지의 조림작업원이 모든 공장, 협동농장, 학교별로 조직되어 참여하고 있는데, 임업 관련 기업·학교에는 종사자의 5%가 조림담당 핵심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 기업·학교에는 종사자의 3%가 조림담당 핵심 조직으로 지정되어 조림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30년간 모든 조림적지에 대하여 조림을 완료하고 현재는 벌채적지와 불량 활엽수림에 대한 침엽수 대체조림을 실시중인데, 연간 조림면적 20만 ha로 추정되며, 기조림지의 60%가 잎갈나무, 낙엽송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야생수지 및 조미료의 원료공급을 목적으로 강원도 일대에 조피나무(일명 산초나무)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강원도의 통천, 고성군과 원산시 등 주로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1백정보를 조성하였는데 조피나무는 씨앗에 포함된 약 33%의 기름을 비롯해, 각종 식료품의 양념감, 방부제의 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같이 조성된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북한주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일로 입산하는 경우 산림보호기관에서 발행하는 입산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어느 경우라도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을 비롯한 인화물질을 지닐 수 없게 돼있고, 담배나 모닥불을 피우지 못하게 되었다. 모두 6장 40조로 돼있는 산림자원보호단속규정이 산림보호를 위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미관사업을 위하여 도시원림화 사업을 실시한 결과, 1983년 현재 평양에는 1인당 녹지면적이 48㎡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2) 임산물 생산 사업

북한내에는 현재 약 60개의 임산사업소를 중심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임산사업소는 산간지대 군마다 3~10개의 임촌을 설치한 후 1개 임촌에 70~200가구를 주거토록하고 임촌에 학교, 탁아소, 가게 등을 설치한후 1개 임촌당 1년에 약 300ha(15,000㎡)를 벌채토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촌은 벌채, 조림, 임도개설, 유수, 산림보수작업을 병행 실시하는 임업전문 집단이다. 북한에서의 벌채방식은 순환 택벌 방식으로 벌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ha 벌채량은 1980년 FAO조사결과 우랑임지의 경우 평균 2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개 작업단은 14명 정도의 작업원으로 구성되어 작업하고 있다고 한다.

목재반출은 북한의 도로와 운송수단이 낙후되어 현재까지도 강을 목재운송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두만강의 경우는 4월부터 7월까지 목재반출에 사용되고 백두산지역의 임목벌채에 기인한 산림토양의 유실로 두만강물의 탁류화현상이 가속화되어 과거의 두만강 푸른 물을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북한내 제일의 산림축적보유지역은 양강도로서 연간 약 120만㎡를 생산하며, 삼지연

군, 보천군, 백암군, 문흥군이 대표적인 산지이다. 다음은 자강도로서 광림군, 화평군, 증강군, 성우군이 대표적인 임산지역이다.

또한 외국에서의 임산물 생산사업으로 1956년에 북한-소련간 [목재벌채에 관한 체그도 문협정]이 체결되어 생산원목의 30~40%의 해당 원목 및 체재목을 반입하는 조건으로 현재 약 1만3천여명의 산림작업원이 시베리아 하바로브스크, 체그도문, 엔가주변에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소련 주재 북한 벌목인부의 밀수사건으로 금년말부터 벌목인부가 귀국하고 매2년마다 연장하던 협정연장이 불가능하게 됨에따라 지금까지 소련에서 반입해오던 연간 약 150만㎡의 원목 및 체재목 수입이 어려울 것이 전망되었으나, 북측의 사과로 이협정이 3년간 잠정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소련으로부터의 목재반입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소련과의 협정이 파기될 경우 만성적인 외화부족 상태인 북한의 입장에서 산림과벌과 산림의 황폐화가 필연적으로 야기될 것이 예상된다.

3) 임산공업

북한의 임산공업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체재공장은 자강도 혜산시 위연체재공장을 비롯하여 평양시, 신의주시, 운전시, 회령시, 무산, 신완, 안변, 문천, 만포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군마다 2개의 소규모 체재소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합판공장은 길주 합판공장을 비롯하여 평양, 순천 등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국에 총 20여 개소로서 연간 공장당 4,000㎡의 소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펄프, 제지공업도 대부분 소규모 공장으로 폐지와 버짚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북한의 부족한 외환사정과 목재부족사정을 짐작하게 된다. 이와같이

저급한 펄프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저급지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고급 크래프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재가공 및 합판펄프 제지공장은 1950·1960년대에 소련·중공등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로 건설되어 1959년 평양 목재가공공장이, 1957년에 길주합판공장이, 1959년에 길주펄프공장이, 1963년에 혜산제지공장이 완공되었다.

4) 임업관련 정부조직

임업관련 행정조직은 1958년 4월 24일에 신설된 임업성이 임업부로개명되어 임업관련 최고행정기관의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 내부조직으로 원목생산 등 10개국이 있다. 산하에 도 주재원, 임산사업소(60개소), 제재공장 등이 있으나 타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임업계획의 실질책임과 권한은 중앙당 및 지방당 기획위원회에서 갖고 있다. 임업관련 부서는 구조적·하위적 기능에 한정되었는데, 임업부의 임무는 실행상의 기술적 방안제시 및 기술지도에 한정되었고 기술지도는 현장실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기관으로는 산림과학연구원이 1964년 6월에 설치되어 산하에 산림경영학연구소, 산림보호학연구소, 경제림연구소, 산림과학연구소의 4개 연구소와 5개시험장(혜산, 함흥, 해주, 용진, 화평), 3개 분원(원산, 혜산, 용진)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연구 내용으로는 주요 연구 대상 수종인 창성 잎갈나무(*Larix leptolepis* Gord), 세잎소나무, 수삼나무 등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름생산을 위한 호도나무(*Juglans regia* L.), 생약·향료를 위한 조피나무(*Zanthoxylum piperitum* DC.)등에 관한 연

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산림과학원 원산분소에서 가지없는 조피나무를 새로 육종하기도 하였다.

산림과학 연구내용으로는 주요수종에 대한 선발 육종과 종합적인 산지이용, 임업기계화 연구, 산림비료, 제조제연구등이 이루어지는데 과학분야의 내용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목재가공·이용분야의 경우는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것으로 추측된다.

5) 임업관련법률

주요법률에 대하여는 1940년대에 발표된 것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임야관리에 관한 주요법률로서 임야관리 경영 결정서(1946. 6. 4), 임야관리령(1946. 6. 4), 임야관리 경영관련의 직제, 임야관리령 위반자처벌 규칙(1946. 6. 27), 산림에 관한 결정서(1947. 3. 22), 공동이용림에 관한 규제(1947. 7. 8), 화전농민의 직장 전출에 관한 결정서(1949. 12. 13), 지방림에 관한 규제(1949. 12. 30), 특별 보호림에 관한 규제(1949. 12. 30),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1950. 1. 10), 국유산림 대부에 관한 규제(1950. 1. 11), 임상조사 사업 추진에 관하여(1950. 3. 8)등이 있다.

조림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 식수기간에 관한 결정서(1947. 3. 11), 조림사업소에 관한 규정(1949. 1. 14), 조림사업소에 관한 규정(1950. 4. 8), 식수조림사업 강화에 관한 결정서(1950. 3. 21), 도로수 보호및 식수 강화 대책에 관하여(1952. 2. 27), 1952년도 춘기 조림·식수사업 강화에 관하여(1952. 3. 1), 식수조림사업 및 산림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 관하여(1956. 2), 동해안 지구의 치산치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데 관하여(1958. 5. 30), 도시 원림화사업을 개선 강화

할 데 관하여(1959. 6. 30)등이 있다.

임산물이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목재기업소(트레스트) 설치에 관한 결정서(1946. 7. 26), 목재생산규격에 관한 규정(1948. 10. 9), 임산업 허가에 관한 규정(1949. 1. 14), 임산업 허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관하여(1949. 11. 12), 국유 임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1949. 12. 30), 내각 임산국 산하 각 기관에 관한 규정(1950. 1. 11), 임목처분사업에 있어서의 지방소비재 취급에 관하여(1950. 2. 21), 목재 생산규격(1950. 4. 28), 임산물 매각 대금 철수에 관하여(1950. 4. 29), 임산부분역우관리 강화대책에 관하여(1950. 4. 29)등에 관한 결정내용이 보고된바 있다.

5. 결론 및 금후의 검토사항

지금까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북한 임업관련 자료를 기초로한 추계자료 분석결과, 북한의 임상은 일제의 식민지 산림자원수탈정책과 6.25전쟁으로 황폐되었으며 아직은 대부분 유평탄 단계로서 조림·사방사업이 현재까지도 계속 주요 임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듯하다. '60년대 중반에 소련·중국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로 합판·제지지공장이 다수 건설되어 있으나 연간 목재사용 실적은 우리나라의 연간 1,000만 m^3 에 비하여 1/3인 수준인

300만 m^3 에 불과하여 북한의 낙후된 임산공업 수준을 짐작할수 있다.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증대시 북한의 산림. 임업관련 협력사항을 고려하여보면 우리측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및 황폐지복구 사방사업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할때 북한의 황폐임지의 재조림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함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재 및 합판. 펄프 공장의 대규모시설을 이용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각종 양질의 임산물, 합판, 펄프 및 지류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측에서는 각종 약초, 산채 및 특용 임산물을 남측에 공급하고 금강산, 백두산등 유명한 산림지대를 산림휴양지대로 남측과 공동개발하여 한민족이 공동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폐쇄돼있는 북한관련 임업자료를 각종 경로를 통하여 조기에 입수연구토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임업연구원과 같은 전문임업연구기관에서 북한임업관련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임업전문가를 양성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신도 과소비로 졸부소리를 들으시렵니까?

졸부들의 행진=과소비